명옥이

명옥이는 그 허술한 주제를 그렇게 변명조로 설명하였다.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까지는, 분명 걷어 올린 치마를 격하여 만져졌는데, 별도 없는 밤을 타서 익숙지 않은 물에 얼겁을 먹고 정신없이 안내인의 뒤를 따라 건너와 보니, 그 패물 뭉치가 간 데 없더라는 것이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지닌 것이란 그것뿐이라 그 실물은 타격이었으나, 워낙 친척 지지에 넉넉한 분들이 많아 그리 고생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실은 평양를 빠져 나올 때 여자로서는 재산 반출이 극난하므로 믿을 만한 사람을 사서 배 한 척을 마련하여 별도로 길을 떠나게 했으니, 그 배만 도착하면 생소한 서울이나마 그대로 걱정 없이 살게끔은 되리라고 부언하였다.

경주는 진하게 탄 찬 미숫가루를 권하면서, 명옥이의 얻어듣기 힘드는 순 평안도 사투리를 들으며, 또 그 상식에서 벗어난 차림새를 보며, 입가에 고소가 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털어 말하여 서로의 소식을 모르며 지내던 이십칠 년을 통하여, 명옥이의 이름은 단 한 번도 경주의 입에 오른 일이 없었고, 과거에서

가끔 건지는 추억 중에도 명옥이가 걸려 있는 일은 그리 없었다. 그러기에 명옥이가 신문사를 통해서까지 자기의 주소를 알아 찾아온 것이, 오히려 송구하고 계면쩍기도 하였던 것이다.

우스운 일이었으나, 명옥이라면 좀 색다른 일로 기억이 있었다.

그녀가 경주네 반에 전입해 온 것은 보통 학교 삼학년 때였었는데, 항상 골골하던 경주가 그 때도 달포나 결석을 한 끝에 학교에 나간 날이었었다. 조회가 끝난 후 약혼자가 죽은 후 처녀로 수절을 해 왔다는 단정한 여선생님이 어느 낯선 아이 하나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왔는데, 검은 치마에 배꼽까지 내려오는 쑥스러운 옥양목 적삼을 입은, 둔해 보이는 그 아이가 명옥이었던 것이다. 그 때만 해도 머리를 중중 땋아 내릴 때라, 명옥이 역시 검정 댕기를 물린 머리를 허리 밑까지 땋았는데, 두골이 유난히 컸었는지 머리숱이 없었는지, 좀 어색스러워 보인 것이 첫인상이었다.

명옥이는 경주하고 곧 사귀어, 경주네 집에 자주 놀러 오게 되었다. 하루는 경주 어머니가,

"넌 어디 살다 왔니?"

하고 물으니깐

"가아창——"

하고 순 평안도 사투리로 대답을 하였다.

"가창? 거창이 아니야?"

"아아니, 거어창말고 가아창!"

명옥이는 고집이나 하듯이 이렇게 되풀이했다. 그 태도와 말투가 어찌나 우스웠던지 모두들 박장 대소를 하고, 그 후부터는

"거어창말고 가아창"이 명옥이의 별호가 되었던 것이다.

이 '거어창말고 가아창'은 무척 어리석고 사람이 덜되리만큼 마음이 좋았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인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명옥이가 그리운 듯이, 경주가 입원하고 있었던 창 옆에 목련나무가 서 있는 병실이라든가, 언젠가 경주네 집에서, 아이들이 어른 몰래 밥 짓

는 장난을 하다가, 솥을 깨었던 이야기 같은 것을 꺼냈을 때는 얼떨떨한 수밖에 없었다. 창 옆에 목련이 서 있는 병실에 입원했던 것이라든가, 솥 깬 이야기는 어린 시대의 특이한 사건으로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는데, 거기 명옥이가 참례해 있었던 것은 깜빡 잊은 일이었다. 나쁘게 말하면 명옥이의 존재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되는데, 사실 어린 시절의 명옥이는 그리 영리하지도 귀엽지도 않은, 어리석디 어리석은 엉성한 아이였던 것이다.

그러나 십칠 년이라는 세월이면, 다박머리 소녀를 몇 아이의 어미니로 자리잡히게쯤은 하리라고 짐작했는데 뜻밖인 명옥이의 모양새였다. 손을 꼽아 볼 것도 없이 경주하고 동갑이고 보니 여자도 한 고비인 삼십이다. 세월의 자취가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요 다박머리 시절과 다름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오히려 엄청나게 변해 있었다. 다만 그 변화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십팔 관은 좋이 되어 보이는 몸집에 여자 중학생의 운동복 같은 옥양목 블라우스 감색 서지 타이트 스커트, 맨발에 헌 검정 구두를 끌었다. 가슴이나 허리나 엉덩이나 그저 두루뭉수리로 뚱뚱한 몸집에 그 옥양목 블라우스는 몹시 좁아 겨드랑 밑과 등판에 민망스럽도록 주름이 잡히고, 코끼리 다리 같은 굵다란 다리에 비하여 굽이 높은 쪽인 구두는 지나치게 작아 보였다. 그것만으로도 입이 험한 중학생들 또래 같으면 어지간히 놀림거리가 될 성한 데다가 목이 밭은 두둑한 얼굴에 빈틈없이 주근깨가 깔리고 끈끈해 보이는 머리를 껑충하게 단발을 한 모습은 악의적인 희화(戱畵)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명옥이가 돌아간 후 경주네 집에서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장난꾸러기 막내 시동생은 일어나 뒤뚱뒤뚱 걷는 흉내까지 내고 식모 아주머니는

"여자도 그렇게 못생기면, 비관두 될 게야."

하고 안돼 했다.

"——난 '베아트리체'같이 그더, 덩신적으로만 그이를 사랑하며 살아갈 테다."

명옥이는 긴 이야기를 이렇게 끝마쳤다. 경주는 위로라든가 격려라든가 하여튼 그러한 고백을 들은 후라면 응당 해야 할, 그런 말이 얼핏 나오지 않았다. 어이없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것이다. '베아트리체'만 들춰지지 않았더라도 또 모를 일인데, 구주주한 블라우스에 기둥만큼이나 한 다리를 뻗고 늘어진 젖가슴이 불룩한 배 위에 처진 명옥이의 그 모습은 아름답고 고귀하고 청순한 '베아트리체'와는 너무나 너무나 거리가 떠서 여태껏 들은 이야기의 인상조차 얼떨떨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다.

명옥이가 말한 그 반생은 너무나 꿈같고 기구하고 소설적이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명옥이의 성격이라든가, 생김새라든가 정서 같은 것으로 미루어 그 이상 가는 미스 캐스트가 없을 것이고, 또 명옥이의 창작 내지 윤색 같으면, 어리석고 어리벙하다고만 생각해 왔던 그녀의 두뇌나 상상력 같은 것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부호 명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실재성을 희박하게 하고 또 그것이 명옥이의 창작이라면 그녀의 사상이 유치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 같았다. 이야기는 제법 줄거리가 서고 정연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고백이 수없이 되풀이된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명옥이에게는 평양 ××고녀 재학 중부터 경도 제대에 다니는 애인이 있었다. 아들이 없는 명옥이의 양친도 그 미목 수려한 수재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여 은근히 미래의 사위로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에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파탄이 온다.

아직 제복의 어린 여학생인 명옥이를 짝사랑하는 갑부의 아들의 출현이 그것이요, 한편 청년에게는 거액의 지참금을 지닌, 지사의

조카딸의 구혼이 있었다. 물론 그러한 난관쯤은 두려워할 두 사람이 아니었으나 청년의 양친이 거액의 지참금과 고관의 자녀라는 데 현혹되어 동요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청년은 강제로 약혼을 하게 된다. 이제는 모든 희망과 삶의 의욕조차 잃은 명옥은, 기도했던 자살에도 실패한 패잔의 몸을 그 부호의 아들에게 맡기게 된다.

사치와 부유와 안락 속에서 평양 갑부 ○○○ 씨의 자부 명옥이는 한낱 산송장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명옥은 풍문에 애인의 결혼을 들었는데 그렇게 기묘한 결혼식은 없었더란 것이다. 즉 신랑의 실종으로 결혼식이라고는 말뿐이요, 신부는 눈물로 신방을 지켰다는 것이다. 이 풍문은 명옥이에게 한 계시가 되었다. 명옥은 그 부유한 혼가를 벗어나와, 동경으로 건너가 면학에만 골몰을 하였다.

8·15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간 명옥이는, 인텔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살아가기 어려운가를 통감하였으므로 재산을 비밀리에 정리한 후, 앞서 말하던 배를(먼저는 한 척밖에 안 되는 것이 두 척으로 늘었다) 사 가지고 월남을 하였던 것이다.

상경한 지 보름쯤 된 무렵, 그녀는 두 사람 사이를 잘 아는 애인의 옛 친우를 만났다. 그 사람은 현재 중앙청의 모 국장인데, 명옥의 애인 역시 일제 시대 고문을 통과한 수재답게 고직에 앉아 있다고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회고에 잠 이루지 못하는 명옥이를 찾는 신사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출세한 옛 애인 그 사람이었다. 명옥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탁 닫아걸고 울며 쓰러졌다.

"그 사람은 애원했어, 다기가 너무 약했다구…… 밤둥꺼디 가디 않구 문 열어 달라구…… 아 참 죽갔더라."

하고 명옥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인은 자기의 명예 가정의 행복 처자들의 운명 그러한 것을 다 희생시키더라도, 애달픈 옛 인연을 다시 맺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난 그래두 그러딘 못 해. 난 깨끗하던 명옥이가 아냐? 또 그이의 가덩을 휘덧기두 싫어……."

요즈음 와서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이 이상 더 버틸 수 없도록 남자의 정열이 강해만 가기에——이윽고 그 애인의 상세한 초상과 성격 묘사가 있었다.

누구라면 다 아는 그런 사회적 명사 D씨. 후리후리한 키에 해사한 얼굴, 높은 코, 맑은 눈, 남자로서는 지나치게 고운 입매…… 그래도 학생 시대에 운동 선수였던 만큼 넓은 어깨 재학 중에 양과 통과를 한 명석한 두뇌——

주근깨가 빈틈없이 덮이고 자라목의 귀 뒤에 때가 낀, 명옥이를 그러한 완전 무결한 인물의 애인으로——그것도 남자 쪽이 적극적인——생각하니 어색하여 미안한 일이었으나, 명옥이의 그런 애달픈 비극이 희극으로 보여 하는 수가 없었다.

저녁상이 들어왔다. 십팔 관의 '베아트리체'의 왕성한 식욕은 삽시간에 한 그릇 밥과 국 한 대접을 널름 치워 버렸다. 경주는 어깨로 숨을 쉬는 명옥이를 보고 문득 가엾은 생각이 들었다.

경주에게는 사랑이라든가 생식이라든가 하는 것이 어쩐지 부끄럽고 죄스럽게 생각되는 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을 먹는 모습같이 딱하고 구슬프게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십팔 관의 '베아트리체'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지적이 되려고 애를 써도 십팔 관의 생리가 어찌할 수 없는 비희극이 거기 있었다.

명옥이는 가끔 찾아왔다.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의 말을 들으면 ×××지사가 외삼촌이고 ×××국장이 또 어떻게 친척 관계가 되고 ×××사장이 당숙이 되고——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대단히 사랑하므로 예의 배가 오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유사시에 자기를 버려 둘 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경주로서는 이 돌연히 출현한 옛 친구의 신원을 캘 생각은 없다. 차림새나 행동 거지가 이상한 만큼 거의 날마다 찾아오다시피 하는

그녀를 그녀가 말한 그대로의 인물로 수긍하지 않고는 지내기가 여러모로 어려웠다. 남편이나 시집 식구들에게도 그녀의 고백에서 추린 몇 가지를 소개하고, 더구나 그녀가 D씨의 구애를 상대편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극력 거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것은 경주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시숙모의 마음에 특히 든 점이었다. 소시부터 시앗을 본 이 노부인은 명옥이가 상대편 처자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신통하다고 칭찬하고, 그녀가 버릇없는 상스럽지 않은 행동을 해도 탄하지를 않았다. 명옥이는 퍽 붙임성이 있어 노인의 비위도 잘 맞춰 주곤 하여 이런 점은 명옥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주에게도 다행한 일이었다.

동경에서는 의전에 다니는 한편 문학 공부도 했었노라는 명옥이의 말의 진부는 알 길 없으나, 그녀의 용어 중에 곧잘 의학적 술어가 나오고 문학도 〈신곡(新曲)〉까지 통독했다면 어지간한 실력이 아니련마는 경주는 그녀와 문학을 논한 일은 없었다. 섣불리 그런 것을 화제에 올렸다가는 약한 신경으로 오히려 자기가 무안을 볼 것 같은 불안을 어렴풋이 알았던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것이 명옥이의 창작이라 할지라도 그녀와 교분을 이어 가려면 경주 자신부터 '속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명옥이가 역시 보통 학교 동창인 연숙이네 집 사랑채에 들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경주는 한편 짐을 벗어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 좀 마음이 거리꼈다.

연숙이가 명옥이에게 맹렬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외이기도 하는 동시에 앞손이 처진 것 같은 느낌도 없지는 않았다. 명옥이의 우정이 그토록 소중하여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주관 문제로 파탄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정을 가지지 못한 격이 되어 뉘우쳐졌다.

더구나 연숙이와 명옥이는 서로를 기억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연히 경주네 집에서 부닥친 둘을 경주가 새삼 인사를 시키다시피 한 사

이라,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두 사람이 다 커다란 집을 지닌 자기를 냉담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은 피학감(被虐感)까지 가져지는 것이었다. 허나 명옥이가 언제까지나 떠다니지 않고 친구집 사랑채에나마 자기 방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혼자 쓰는 방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진실이었던지, 명옥이는 발이 좀 멀어졌다.

가을이 깊어 가는 어느 날 어스름에 명옥이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얼마 안 보았던 까닭인지 명옥이는 더욱 뚱뚱해 보이고 입은 옷도 전보다는 훨씬 나아져 있었다.

그이가 그러면 속죄의 의미로 공부라도 시키겠다는 성화에 의과대학 졸업반에 적을 두는 한편 동네 사람들의 청에 못 이겨 야간 진료 따위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저녁을 같이 한 후 경주는 명옥이를 전차 정류장까지 배웅을 하였다.

밝은 달이 찼다.

좀처럼 오지 않는 전차를 기다리며 뜨문뜨문 말을 주고받고 하는 동안 경주의 시선이 문득 명옥이의 옆얼굴로 갔을 때 그녀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첫인상부터가 '짱구'에 쥐꼬리만한 머리——그것이었었는데, 지금 보는 명옥이의 두골은 후두부가 극히 편편하다. 엄청나게 두부가 큰 것은 변함없으나 그것은 좌우로 퍼져 그런 것이고, 단발을 한 뒤통수는 깎은 듯이 납작하다. 옛일은 덮어두더라도 최근만 해도 수십 번은 만났는데 여지껏 모르고 지내 왔던 것이다. 안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것이리라고 풍자로운 생각이 들어 우스웠다. 전주에 기대선 명옥이는 달을 쳐다보며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아아 수도원에나 들어갈까?"

그 말이 너무 호들갑스럽게 발음되어 경주는 반사적으로 그 얼굴을 응시하였다. 순간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나 달빛을 정면으로 받은

명옥이를 경주는 아름답다고 생각하였다. 달빛이 주근깨가 닥지닥지 붙은 불결한 피부를 정화시킨 얼굴에 오뚝 솟은 콧날, 든든한 턱, 애교 있는 입매가 인상적이었다. 뜯어 보니 귀염성스러운 얼굴이었다. 그 후부터는 그저 회화를 보는 것만 같던 명옥이의 연애에 약간 실감이 생겼다. 그러한 표정을 하는 순간이면 연애도 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연숙이가 찾아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다.

"얘 말 마라. 난 그런 더러운 년, 첨 봤다. 늙은 게 그렇게 남의 남자에게 꼬릴 치구. 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문제야. 걔네 아버지가 또 뭐랄까 걱정이구."

그녀는 백팔십 도로 전환하여 신이야 넋이야 명옥이의 욕설를 퍼부어 대었다.

"넌 속구 있어, 속구 있어요오. 걔헌테 돈두 주구 했다지? 경주가 이러구 저러구——절 그렇게 도와 준다구 자랑하더라."

경주에게는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올 일이 왔다는 느낌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명옥이의 언행과 사상은 기상천외인 만큼 꼬리가 잡히기 쉬웠고, 그것은 절망과 희망, 영화와 궁핍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겉잡을 수가 없었다. 새삼스러운 연숙이의 노여움이 오히려 유치하였다.

"뭘 면허가 있다구 산과 개업을 또 했단다. 그런데 대엿새 전에 어떤 사람이 걜 찾겠지. 마침 외출 중이라 없댔더니 면허증두 없이 개업했다구 위법이라나 뭐라나 한바탕 떠들썩했어."

그것은 초문이었다. 경주는 속으로 혀를 찼다. 다른 것은 고사하더라도 그런 일은 인명에 관한 일이니만큼 좀 지나쳐 못마땅했다.

"꼭 한 번 얼뜬 봤지만 사낸 근사해. 어쩌다 오는데 남의 눈을 그리두 꺼리는 태도가 비겁하더라. 그런 날 저녁이믄 내가 챙피스러워 문 꼭꼭 닫아걸구 앞마당에두 내려서기 싫어. 굉장허거든."

하고 침을 뱉다시피 하였다.

경주는 '베아트리체'가 문득 머리에 떠올라 또 입가에 고소가 일었다. 그 근사한 명옥이의 애인을 경주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명옥이의 추잡하고 불행한 연애를 위해서나 또 경주의 결벽과 의분을 위해서나 들추기 싫은 일이었다.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경주는 모든 것을 번개같이 이해했던 것이다.

애인의 사회적 지위나 초상(肖像)에 한해서만큼은 명옥이의 말에 거짓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처지는 완전히 도착적(倒錯的)인 것이고 명옥이의 고백은 다만 이마에 주름을 잡기 시작한 그 체중만큼은 불행을 지닌 못생긴 중년 여성의 꿈과 희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 사회적 명사인 단려한 외모를 가진 신사는 동물이 되는 순간에만 명옥이를 찾았으리——이런 생각이 스치자, 동물이 될 수밖에 없는 명옥이가 진실로 가여웠다.

그 후 명옥이는 웬일인지 발을 끊다시피 하였다.

명옥이를 못 본 지 두어 달 가량 되는 어느 날 연숙이가 앵두를 사들고 왔다. 둘이 만나면 언제나 화제가 명옥이에게 떨어지는 것은 이즘 버릇이었다.

"명옥이가 말야, 얘 대활약을 했단다. 어디라던가 어느 지방에서 그 사내가 국회 의원 출말 했다나. 그런데 그 선거 운동을 걔가 맹렬히 했대. 말은 왜 곧잘 허잖아?"

그 뚱뚱한 몸집에 단발을 한 꼴을 하고 순 평안도 사투리로 연설에 열중하는 명옥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청중들의 조소과 경멸에 찬 눈초리도 경주는 외면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 애인이라는 자를 본 후로는 어쩐지 불쌍해만지는 명옥이었다.

"그런데 본부인이 또 남편의 뒤를 따라 그리루 내려갔더래. 그래서 거기서 맞부딪쳐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나. 본처는 이쁘다더라."

있음직한 일이었다. 명옥이는 애인의 아내를 무식하고 못생긴 여자라고…… 그래서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신랑이 결혼식을 앞두고 실종을 한 것이라고 한 것이었으나, 그것 역시 불쌍한 명옥이의 도착

과 희망이라는 것은 말을 들은 순간부터 짐작했던 일이었다.

"그런 선거 운동이 성공할 리 있어? 미역국 먹었지 뭐야."

연숙이는 깨가 쏟아지는 모양이었다.

"전명옥이라는 분을 아셔요? 동창이라던데……."

간밤부터 열이 난 아이를 데리고 간 허 박사 병원에서였다. 처녀 때부터 사귄 분이라 언제나 병원엘 가면 약이 조제될 때까지 잡담이 벌어졌다. 그러나 허 박사의 입에서 명옥이의 이름을 들으리라고는 뜻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선생님이 어떻게 명옥일 아셔요?"

허 박사는 그것이 버릇인 윗입술을 마는 듯한 웃음을 보이며

"친구의 따님이라……."

하고 보니 허 박사 역시 평양 출신이었다.

"걔가 어떡했어요?"

경주는 웬일인지 걱정이 앞섰다.

9·28 수복 후에 사회부에서 잠깐 본 후 소식을 모르는 명옥이었다. 살아서 부산으로 무난히 피난을 왔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으나 아는 사람마다 도리질을 하는 중에 그래도 자기만큼은 한 번도 그를 헐어 말한 기억이 없는데 찾지 않는다는 것은 섭섭한 일이기도 하였다. 오랜 피난 생활에 인정에 굶주린 탓도 있긴 하겠지만.

허 박사는 물음에는 대답이 없고

"그 분이 동경 약전을 나왔나요?"

한다.

"글쎄요?"

경주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다.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를 비방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거짓말이 되었다.

"아니 동창이라며 모르셔요?"

"왜 그러세요?"

이번에는 경주가 대답을 않고 되물었다.

"아니 사변통에 졸업 증명서를 잃어버렸다구 보증을 좀 해 달래서……."

경주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쓴웃음을 지었다. 근엄하고 견실하고 신중한 허 박사의 성격을 그렇게도 몰랐던 명옥이가 가엾기도 우습기도 하였다.

"졸업 증명선 왜 또 그렇게 필요한가요?"

"무슨 신약을 발명했다나요. 특허(特許) 신청을 하는데 추천두 좀 해 달라드먼요."

"그래서요?"

"뻐언하지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구비된 시설과 연구와 원료를 갖추어서 발명된 것두 신약이라면 심중히 신중히 실험한 결과 학회에 제출한 후 확인을 받고 발매를 허는데……."

하고 허 박사는 빙그레 웃었다.

명옥이의 신발명 약에 대해서는 또 한 군데서 같은 말을 들었다. 애초부터 부산서 남편이 개업을 하고 있었던 역시 동창인 숙자를 노상에서 만났는데 꼭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경주는 그 때도 어정쩡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걔 뭐 국회 의원의 부인이래재? 남편이 납치되어 갔다며?"

부산 사투리를 섞어 가며 숙자가 물었다.

"글쎄?"

"기가 맥히는 양옥에서 금수저로 밥을 먹었다며?"

"모를 일이지."

경주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피난 내려온 후 연락이 없던 연숙이를 만난 것도 역시 노상에서였다. 화제는 역시 명옥이에게 떨어져 갔다.

"사내가 납치된 것은 본처 때문이라나. 본처와 이혼허기루 되어 있어, 약이 잔뜩 오른 본처가 밀고를 한 것이래. 누가 알 일이야

뭐?"

거지가 되다시피 된 명옥이가 펄펄 뛰며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얘 병연이 생각나니? 왜 그 용하디 용하던. 걔가 부산 어느 중학교 선생님 부인이라나. 걔가 명옥이 말에 홉빡 넘어가 방을 한 칸 치워 주었더래."

하고 갑자기 깔깔대고 웃었다.

"내 뒬 밟은 것이 되지 뭐야. 아이구 진저리야……."

연숙이는 호들갑스럽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경주는 그 후 명옥이의 소문을 알지 못했다. 누구에서인가 약국을 내고 괜찮게 지낸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기도 하였지만.

지루하게 비가 내리던 끝에 어쩌다가 햇볕이 비낀 날이었다. 경주는 밀렸던 볼일을 보러 거리에 나섰다. 사람마다 비에 잠겨 있으리 했더니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자유 시장 입구에서이다. 어린것을 업은 뚱뚱한 여인이 이쪽으로 뒤뚱뒤뚱 걸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불그스레한 블라우스에 검정 스커트, 맨발에 고무신을 끌었다. 명옥이였다. 어린애를 업은 명옥이——너무나 뜻하지 않은 그의 모습이었다. 경주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맞이하듯이 발길을 그리로 옮겨 갔다. 명옥이도 이쪽의 시선을 느꼈는지 눈을 들어 확실히 경주를 본 모양이다. 반가웠다.

그러나 명옥이는 시선을 돌리고 시장 쪽으로 길을 꺾어 들었다. 경주는 얻어맞은 것처럼 발길을 멈추고 눈으로 그의 뒤를 쫓았다. 명옥이의 걸음걸이에는 확실히 배후(背後)를 의식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어머니가 된 명옥이, 경주에 있어 그것은 마치 타격이나처럼 큰 감명이었다. 그는 뒤를 쫓으려 하다가 그 자리에 도로 서 버렸다.

뙤약볕에 양산도 없이 등에서 곤드라진 어린애를 업은 명옥이의 모습이 그날같이 비참하게, 그러기에 그날같이 훌륭하게 진실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비참으로 말미암아 어린것을 업은 그의 모습은 진실에 차 있는 것 같았다. 인사 없이 그저 가게 두어 버리는 것이 얼

마만큼 명옥이에게 대한 대접이 될는지 모른다고 경주는 생각하고 명옥이의 뒤를 지키기만 하였다. 어린애를 업은 명옥이의 모습은 시장의 잡답 속에서 어른어른 보이다가, 이내 그 속에 묻혀 사라져 버렸다.

(1953. 5.)